

학교규칙 준수 “그린마일리지”

부산교육청 등·하교 시스템 연계 상벌점제 도입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근)은 등·하교 시간 인식기와 연계한 상벌점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교규칙을 준수하는 문화를 강화하고자 등·하교 시스템 연계 상벌점 ‘그린마일리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범운영학교 57교(중29교, 고28교)에 보급·운영한다. ‘그린마일리지 프로그램’은 학생증에 부착된 바코드 또는 RFID 칩을 통하여 인식된 개

별 학생에 대한 등·하교, 조퇴, 외출 상황을 자동으로 기록하여 프로그램에서 누적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그리고 결석, 지각, 조퇴 시 학부모에게 SMS 문자를 발송하여 학생의 근태상황을 가정에서도 알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상벌점제와 연계하여 학부모와 상담할 수 있는 종합적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그린마일리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전에 학교별로 학생생활규정 제정 추진단(학생, 학부모, 교사)을 구성하여 의견수렴을 한 후 규정을 제·개정하고 학생생활지도에 엄정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동안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방안 T/F협의회, 생활지도 담당교사 회의 등을 거쳐 시범운영학

교를 선정 후 프로그램 설치 환경 및 매뉴얼 연수 등을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생활지도 담당교사의 업무를 경감하고, 학생 스스로 법과 원칙을 지키는 교육환경을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올해 ‘그린마일리지 프로그램’ 시범 운영을 통해 우수사례 및 문제점 등을 모니터링하여 우수한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희망하는 전 중·고등학교에 보급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자율직무연수 실시

교과연구회와 교사학습동아리 구성 자율적 연수 실시

대전교육연수원(원장 이관목)은 수요자(현장)중심의 연수 기회를 제공하여 내실 있는 연수 체험으로 교수·학습 및 생활지도 등에 대한 교원의 전문 능력을 제고하고 교실수업 개선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자율직무연수를 연중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자율직무연수는 자발적인 수요자 중심의 연수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개별 교원의 요구에 따른 맞춤형 연수를 위해 교육현장의 적합성을 제고하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정규 수업 후 중점학교에서 진행하며, 교실수업개선과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자율직무연수에 필요한 경비(교재인쇄비, 원고료, 감사수당, 감사교통비)는 교육연수원에서 지원하고 있다. 현재 4개의 교과연구회와 교사 학습동아리가 신청·승인을 받아 연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신청이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성모여자고등학교에서는 ICT음악 교과연구회 중등교사 30명이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10일, 30시간) ‘실용화성학 실습’이란 주제로 실용화성학 실습을 통하여 교실 수업개선에 필요한 편곡기능능력을 배양하고, 기존에 편곡된 악곡을 학교실정에 알맞도록 재구성하여 학습의 효율성과 학습자의 흥미를 높이고자 자율직무연수가 진행된다. 중점중학교에서는 21명의 중등교사가 ‘사고력 신장(PBL)’이란 주제로 5월 25일부터 6월 5일까지(10일, 30시간) 이러닝 선도학교 운영 및 교사 학습동아리 연구주제 ‘PBL수업 모형 적용을 통한 교실수업 개선’에 필요한 PBL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여 수업에 적용함으로써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신장을 위해 자율직무연수가 진행된다. 또한, 충남여자중학교에서는 ‘꿈꾸는 학습동아리’ 초·중등교사 20명이 6월 1일부터 6월 29일까지(5회, 15시간) ‘토론에도 길이 있다’라는 주제로 학교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독서토론 기법을 이론에서 실기까지 심도 깊은 연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대전교육연수원 이관목 원장은 “근무지와 인접한 학교에서 교원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연수를 통한 전문성 함양으로 대전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며 찾아가는 자율직무연수가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했다.

진단평가 새로운 지평 열다

대전사이버가정학습 - 진단·처방학습 서비스 개시

대전교육정보원(원장 최재천) 대전사이버가정학습(http://djstudy.or.kr)에서는 대전사이버가정학습을 활용하는 초등학교 4학년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진단·처방학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단·처방학습 서비스는 학기별, 단원별 학생 스스로의 학력 및 학습습관을 온라인 상에서 진단을 받을 수 있고 진단 결과에 따른 맞춤형 처방을 제공해 주는 서비스로 학생들의 학업성취 의욕을 고취시켜 사이버가정학습에 대한 참여를 확대시키고, 공교육 내실화 및 사이버가정학습을 활성화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으며,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5개 교과를 각 과목별로 진단문항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진단결과는 영역별 점수, 약점분석, 균형도(그래프와 도표), 채점표 등을 제공하여 자신의 학력수준을 알기 쉽게 보여주며, 나아가 틀린 문항 및 취약영역에 대한 처방학습도 제공해 주며, 처방학습에서는 오답노트 및 틀린 문항과 관련된 보충, 심화 문항 그리고 취약 영역을 학습할 수 있도록 관련 콘텐츠를 연결해주고 있으며, 평소 학생들의 학습습관을 진단하고 진단결과에 따른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학력 및 학습습관에 대한 진단결과에 대해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는 1:1 상담 메뉴도 운영하고 있어, 학력 및 학습습관 진단에 대한 궁금한 점, 진단문항에 대한 의문점 등을 해결해 주고 있다. 대전교육정보원 최재천 원장은 “기존의 진단평가는 학생들의 평가 점수를 기초로 학생들의 학력을 분류하는 것에 그쳤지만, 사이버가정학습에서 제공하는 진단·처방학습은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자기학력을 진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결과적으로 학력 신장 및 사교육비 절감을 가져올 수 있어 진단평가 방법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말했다.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협약식 개최.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협약식.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협약식.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협약식.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협약식.

대구유천초 ‘장애체험교육’ 실시

장애인 이해할 수 있는 데 큰 도움돼

대구유천초등학교(교장 최재섭)에서는 5월 13일 통합학급을 상대로 장애이해교육 및 장애체험교육을 실시하였다. 대구광역시립구별종합복지관, 시각장애인복지관, 청각언어장애인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지적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의 3가지 종류의 체험을 했다. 지적장애이해 및 체험교육은 지적장애인을 대할 때의 예의, 지적장애인을 도와주는 방법, 휠체어 사용법 등을 알아보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휠체어 직접 타 보기는 잠시 동안이었지만 지적장애인이 되어서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시각장애이해 및 체험교육은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는 보조도구의 이름과 사용법을 알아보고 시각장애인을 도와주는 방법, 시각장애 예방법 등을 알아보았다. 인대로 눈을 가리고 한지팡이와 친구의 도움을 받아 시각장애체험을 하여 시각장애인의 불편함을 어느 정도 알지 못했는지 알게 되었다. 시각장애이해 및 체험교육은 친구와 내가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알아보고 청각장애 보조도구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보청기를 직접 착용해 보았다.

체험에 참가한 학생들은 새로운 경험이라 재미있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다고 한다. 휠체어를 탈 때는 휠체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가지도 않고 팔이 무척 아팠으며 보청기를 착용했을 때는 소리가 너무 커 귀가 아팠다고 느낌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안대를 착용했을 때에는 두려웠다는 느낌을 가졌다고 했다. 짧은 시간이지만 장애를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그들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알게 된 소중한 경험을 하였다. 유천초등학교는 지난 장애인의 날 아침 방송시간에 ‘장애인의 날 특별기획 방송 시청’을 통해 장애이해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는 데 큰 도움됐다. 장애인 이해할 수 있는 데 큰 도움됐다. 장애인 이해할 수 있는 데 큰 도움됐다. 장애인 이해할 수 있는 데 큰 도움됐다. 장애인 이해할 수 있는 데 큰 도움됐다.

부평도서관에서 맞는 봄나들이

진정한 공부 의미 되새기는 장으로

“열우물 책 축제로 봄나들이 오세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인천광역시부평도서관(관장 김일환)에서는 23일(토) 오전 11시부터 오후5시까지 도서관 내 야외 행사장에서 ‘열우물, 책 축제’가 진행된다. ‘공부의 달인, 호모공부스’, ‘열하일기, 웃음과 역설의 유쾌한 시공간’ 등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고미숙 작가 초청 강연이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부평도서관 평생학습실에서 개최되며 학업 등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진정한 공부란 무엇인지 생

각해보는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평도서관에서 원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도서관 버스를 접하기 어려웠던 지역주민에게 이동도서관 체험마당을 운영한다. 체험마당에는 ‘동화연구와 함께 하는 동화책 낭독회’, ‘현장 체험-오늘은 나도 사서!!’ 등 다채롭고 재미있는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 하이라이트인 ‘책으로 함께하는 희망 나누기-책 나눔’ 행사는 열우물도서관 교환의 장으로 책 나

눔과, 지식의 공유를 위한 의미 있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인천영평문고 및 인천외국어사후원을 받아 신간 도서 및 베스트셀러 도서, 어린이 영어도서(원서) 등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코너도 마련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도서관 내 열우물 전시실에서는 도서출판 한솔의 후원을 받아 어린이들에게 친숙한 구름빵 원화 작품전이 전시될 예정이며, 페이스 페인팅, 풍선아트 등 풍성한 볼거리와 체험의 기회가 가득한 책 축제가 될 것이다. 평소 영어공화, 아동도서에 관심있는 부모들에게는 다양한 동화를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주안남초교, ‘주안도서관에 떴다’

인천주안남초등학교(교장 장경례)에서는 4학년 7학급 213명을 대상으로 주안도서관 주안도서관 숲 생태교실 수업을 5월 12일부터 22일까지 각 학급별로 실시할 예정이다. ‘도서관 숲 생태교실’은 도서관 체험과 함께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더불어 살아 가는 삶의 태도를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 교육 내용은 주안도서관에서 직접 제작한 교재를 가지고 학

생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방법과 예절, 도서 및 자료 이용 방법, 자료 검색 실습을 한 후 도서관 정원과 생태 학습장으로 이동하여 생태 연못에 있는 수생 식물과 계절별 생태 환경의 변화를 체험해 보는 활동으로 진행된다. 생태 연못을 돌아본 황주영(4년)학생은 “고대 이집트에서 책이 기원이 되었던 파피루스 식물을 직접 보니 신기하고, 다른 친구들에게도 보여 주고 싶어요”라며 식물에 관심을 표

현했고 차준혁(4년)학생은 “시원한 나무 그늘에서 책을 읽으니 숲 속에 소풍을 온 것 같아요. 다음에는 우리 가족과 함께 와서 책을 읽을 거예요”라며 도서관 문을 나섰다. 학생들과 함께 체험한 이안선 교사는 “도서관 숲 생태교실 수업을 통해 도서관이 아이들에게 재미있고 친숙하여 다시 오고 싶은 곳으로 여기게 되었다”며, 자연 환경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며 “앞으로 공공도서관이 지역주민의 독서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4회 어린이동화작가 대회 참가자 모집

대구광역시립동부도서관(관장 권태훈)에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어린이들이 어릴 때부터 글쓰기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5월 27(수) 동구관내 및 도서관 인근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제4회 어린이동화작가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동화창작을 주내용으로 글쓰기에 대한 흥미와 창의력, 상상력, 사고력, 문장표현력 신장을 통해 창작에 대한 자신감을 가짐으로써 작가에 대한 꿈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하였다. 참가신청은 5월 15일(금)부터 22일(금)까지이며, 동구관내 초등학교는 학교별로 학교장 추천을 통하여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글쓰기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개별접수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부도서관 열람봉사과(940-4133)로 문의하면 된다.

중앙초등학교 학생 구강질환은 이제 끝

인천중앙초등학교(교장 김남호)는 김진석 인천광역시동부교육장과 남부교 연구부장, 연구위원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구강보건실 개소식을 가졌다. 구강보건에 관한 지식 태도, 행동 및 변화 도모, 구강질환의 조기예방을 통한 평생의 구강건강유지, 포괄적인 구강보건진료서비스 등의 주기적 제공을 사업목표로 연구보건소의 40,160천원 지원을 받아 치과진료 30여종의 장비를 갖추고 개소식을 가졌다. 주1회 치과외과, 주2회 치과위생사가 학교를 방문하여 학생 및 교직원들의 구강건강을 위한 서비스를 실시한다. 연구 최초로 중앙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한 연구부장은 축사를 통해 “관내 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점차 확대 설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구강보건실을 설치한 중앙초등학교장은 학생들의 구강 건강을 위해 구강건강실태조사, 구강보건교육 및 개인별 잇솔질 교습, 치아 홈메우기, 치면 세마, 불소용액양치사업, 식이조절, 구강건강증진도 검사 등의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체 학생들은 물론 가정환경이 어려워 구강질환 치료를 받지 못하던 학생들에게 치과 치료 서비스를 학교에서 제공하게된다.